

# 《서울대의 나라》를 읽는 두가지 독법

## 서울대 이상 파괴는 제도 개선으로 엮히고 설킨 사회문제 밝히길

정영섭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개마고원의 기획 시리즈 ‘한국사회의 딜레마’ 중 하나로 강준만 교수가 《서울대의 나라》를 펴냈다. 과연 우리나라에는 여러가지 엮히고 설킨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통감, 체념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어느 잡지사의 주간은 한국의 지금같은 현상유지는 오로지 ‘하느님이 보우’하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개마고원은 체념치 않고 문제의 확인과 해결의 모색을 위해 과감하게 한 화두를 공개했다.

우리나라 교육병폐의 뿌리는 국립-사립이라는 파행적 대학제도, 특히 은폐된 국립 서울대학교의 부당한 독점지위에 있다. 여기서 돌아난 굵은 덩굴이 사방을 휘감고 있는 것이다. 우선 서울대로 집중된 전국적인 입학경쟁의 압박으로 중등교육은 입시위주로 변질되었다. 대학들은 차등화된 서열구조 속에서 공정한 학문적 경쟁이 불가능하고, 사회에는 학벌지배라는 전체주의가 자유경쟁을 왜곡하며 국민을 억압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그치지 않는 과격시위도 과거 중등학교 때의 암울한 환경에서부터 현재 서열화된 대학구조 속에서 미래의 사회적 비전마저 어두운 현실에 대한 반작용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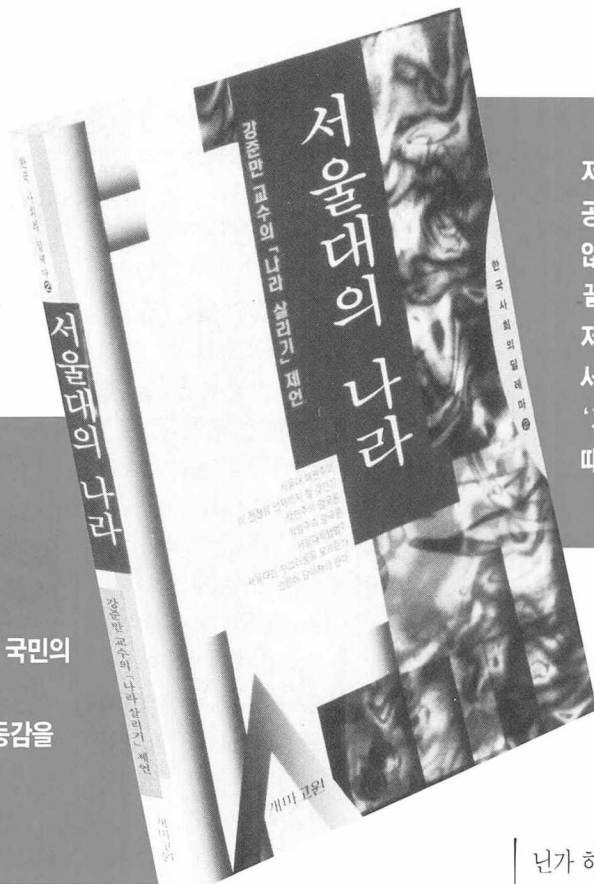
이러한 가운데 특권기관인 서울대 자체도 조직의 효율성, 학문의 우월성, 그리고 인성 교육기능이 실종될 수밖에 없다. 먼저 서울대는 공기업의 속성에 따라 행정과 운영이 비효율적이고, 또 경쟁상대가 없는 특수환경에서 경쟁력 향상의 자극이 결여되었으므로 학문수준이 정체되어 노벨수상자나 그에 버금가는 석학의 배출이 불가능할 수 있다. 오히려 고등학교를 졸업한 순수한 소년이 일단 서울대에 입학하게 되면 ‘서울대생’이라는 특별신분에 대한 주위의 시선과 자신의 심리적 압박으로 이미 ‘보통사람’일 수가 없게 되는 경향이 짙다.

서울대인들은 서울대를 ‘모교’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흡입하는 ‘국가의 기관’으로,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손실과 박탈에 주목해야 한다. 비서울대인들도 상대적인 열등감을 떨쳐버리고 역사적 안목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나랏돈으로 공부한 후에도 사회에 이름없이 겸손하게 헌신, 봉사, 희생하는 역할이 객관적·주관적 요인으로 불가능하고 주위의 기대에 대한 실체증명과 자기만족의 실현에 쫓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잘 나가는’ 소수 이외의 다수 서울대인들의 흥중이 어떨지는 짐작이 간다. 심지어 학벌에 걸맞은 사회진출이 어려워지자 비판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다.

서울대는 분명 우리 사회의 이상이고 마왕이다. 사회를 억누르고 자신의 구성원들을 오도, 파멸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 적은 더이상 북한 공산당이 아니라 국립서울대학교, 그러나 ‘서울대인’이 아니라 서울대학교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서울대는 반드시 폐교되어야 한다. 전체 정리가 어려우면 우선 학부부터 폐지해야 한다.

서울대인들은 서울대를 ‘나의 모교’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흡입하는 ‘국가의 기관’으로, 또 서울대인 개인의 이익과 특권이 아니라 이로 인한 대다수 국민의 손실과 박탈을 주목해야 한다. 비서울대인들도 상대적인 열등감을 떨쳐버리고 나라



저자는 서울대 특별법이 공적 담론에 의해 다루이지 않고 소숫집의 사담으로 끝나버린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저자는 서울대 패권주의를 서울대와 비서울대간의 ‘계약조건’의 원초적 불평등 때문이라고 본다.

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과학적인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내용전개 그리고 해결방안이 제시되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광대한 사회문제의 정글 속에서 서로 엮힌 문제들의 엄청난 덩굴에 아연해 할 뿐 그 시작과 끝도 모르고, 설혹 어떤 단서를 잡았다 해도 개개인에게는 해결의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강교수의 책이 문제를 밝히는 햇불로서 민족적 재앙을 사전 예방하는 방편이 되기 바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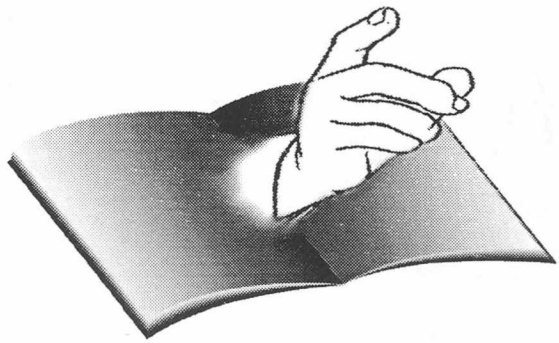
## 현대판 ‘서원 철폐’론인가 ‘금기’와 ‘성역’ 드라마틱하게 과장

구승희 동국대 강사·철학

강준만 교수의 《서울대의 나라》(개마고원)는 ‘서울대 망국론’이나 ‘서울대 폐교론’ 같은, 저자가 보기에 금기시되고 성역화되는 담론을 언론이 피해가기 때문에 한국의 공공 커뮤니케이션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로 시작한다. 《서울대의 나라》는 말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오류인 끊임없는 반복과 지루한 증언부연으로, 두어 쪽지를 읽고 나면 나머지는 ‘활자구경’밖에 할 게 없다.

금기와 성역이 있는 한 은폐된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 모든 감춰진 이야



## “미친녀석들”

처음,  
책을 만드는 길에  
들어서겠다고 했을 때  
주위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미쳤구나.”  
좀더 편하고 안정된  
길을  
가라고 권했습니다.  
바로 여기  
미친녀석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것에 미쳐야  
프로가 되는 것이죠.

기는 포장마차에서나 회자되는 ‘사적(私的)인 담론’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그것을 ‘폭로’함으로써 한국 언론의 이중성을 극복하고, 언론학자의 세련된 ‘언론플레이’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는 ‘금기와 성역 건드리기’라고 말한다. 그런데 “서울대가 나라를 말아먹는다”는 것이 어째서 금기이거나 성역에 속하는 문제인지 알 수 없다. 책을 보면 신문에 다 나와 있는 자료를 인용하고 있고, 정치인이 공개석상에서 이미 내뱉은 발언들을 성역에 속하는 문제로 만들기 위해 드라마틱하게 과장하고 있다.

저자는 서울대특별법과 관련한 문제가 공적 담론, 즉 언론에 의해 공정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소숫집에서의 사담(私談)으로 끝나버린다고 분통을 터뜨리는데, 필자가 보기에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 듯 싶다.

첫째, 문제 자체가 너무나 간명하여, 논변적(diskursiv) 의사소통이 필요없기 때문일 성싶다. 왜냐하면 누가 서울대 없는 나라가 서울대 있는 나라보다 좋을 거라는 충분한 논거를 제시할 수 있겠는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서울대 패권주의, 학연주의, 학벌주의, 서울대의 권위주의, 서울대의 봉건적 우월주의,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이데올로기 등 수많은 절망으로부터 나오는 분노는 서울대 망국론의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충분조건은 아니다.

두번째 이유는 다시 두가지 상호관련된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어느 누구도 패자부활전은 없기로 한 서울대와의 계약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서울대 문제가 서울대와 비서울대간의 잘못된 계약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포장마차에서나 “건국 이후 대한민국은 서울대 때문에 망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저자는 서울대 패권주의를 서울대와 비서울대간의 ‘계약조건의 원초적 불평등’ 때문이라고 본다. 서울대 패권주의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누적의 결과이기 때문에,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적용하면 할수록 서울대는 필연적으로 비대해질 것이다.

저자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를 훨씬 능가하는 이따위 나라에서 무슨 얼어죽을 ‘기회균등’이란 말인가?”라고 감성에 호소함으로써 쉽게 원칙과 룰을 뛰어넘는다. 이는 정당한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일종의 ‘판 깨기’인데, 서울대 폐교론이나 서울대 망국론 역시 그 정당성의 최종 준거가 ‘평등의 원칙’이라면 합부로 절차적인 정의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진정 서울대 폐교를 원한다면 그것이 폭력적 방법이 아니고,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래서 서울대 폐교를 위한 협상테이블에 서울대측을 끌어내려면, 그래서 서울대 없는 평등한 나라를 원한다면, 서울대 뿐만 아니라 비서울대 역시(이런 이분법이 가능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성실한 협상의 자세가 필요함은 말하나 마나다. 그런데도 저자는 오직 판을 깨기 위해 “학생들이여 대정권투쟁을 그만두고, 서울대 학벌주의와 학연주의를 격파하라”고 선동한다.

저자는 송호근 교수의 칼럼을 비판하면서 ‘누가 승자에게 패자를 심판할 권리를 주었는가?’라고 말하고 싶어한다. 그럴 듯하다. 그러나 서울대 프리미엄-그것이 신화로부터 나온 것이든 잘못된 확률계산법 때문이든 간에-인정하지 않을 자유는 우리에게 없다. 그렇게 되면 그건 최악의 상대주의로 되기 때문이다. 만약 패전국 일본이 미국과 연합국에 대해 똑같이 말한다면 우리는 옳소! 라고 응수해야 한단 말인가?

서울대에 보내고 싶은 이 나라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을 바보로 만들지 말라. 그들은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면서 믿을 건 역시 확률 뿐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으므로! ❖

구분	정규과정	주말정규과정	DTP특강과정
강의기간	5개월	5개월	8주
강의시간	오전반10:00-13:00 오후반14:00-17:00 야간반19:00-22:00	토요일15:00-21:00 일요일10:00-16:00	오전반10:00-13:00 오후반14:00-17:00 야간반19:00-22:00
정원	30명	20명	20명
강의요일	월·화·목·금	토·일	월~금

### 서울편집활스쿨

국내 최초 최대의 편집 교육기관      문의 672-1841 · 2 633-1881 · 2  
한국 출판학회추천 교육기관      FAX 637-0441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매체협회지정교육기관      영등포구청역하차 5번출구방향100미터